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박희진 (Heejin Park)**

목차

- | | |
|------------------|-------------------|
| 1. 서론 | 3.3 기록관리 연구 영역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내용분석 |
|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 4.1 기록관리 일반 |
| 2. 선행연구 | 4.2 기록관리 기술 |
| 3. 정량분석 | 4.3 기록물 유형 |
| 3.1 연구자별 분포 | 5. 결론 및 제언 |
| 3.2 키워드 분석 | |

<초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 학회지에 발간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북미를 중심으로 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Archivaria』 학술지에 실린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연구자별 분포, 주제영역별 키워드 분포를 조사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서도 연구논문의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리학의 주요 주제영역에 대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내용과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기록관리학, 아키바리아, 연구동향, 내용분석, 북미 기록학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articles published in Archivaria to identify various trends and to explore the future research agenda in the area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 75 articles published in Archivaria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In quantitative measurement, the study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subject areas by year and author. In content analysis, the articles are categorized into the subject areas related to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research topics, as well as the foci and research methodologies used.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North American and Korean research trends in the area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Keywords: record management, Archivaria,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archival studies in North America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papermod@hansung.ac.kr)

■ 접수일: 2014년 10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4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느 분야의 학문이 정립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와 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동향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국내의 기록관리학 발전의 현 단계를 조망하고 부족했던 연구주제들과 향후 연구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의 동향 파악과 함께 해외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국제 동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향을 조명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 학회지에 발간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주요 영역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Archivaria』는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에서 1975년부터 매년 4월과 8월 2회씩 발행하는 기록학 전문 학술잡지이다. 『Archivaria』는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가 발행하는 『American Archivist』와 함께 아키비스트 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전문저널로서 기록관리학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기록관리 이론과 현장의 동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핵심저널이다. 『Archivaria』는 캐나다 아키비스트 저널이지만 이스트우드

(Eastwood, T.) 듀란티(Duranti, L.) 등 대표적인 기록학자들이 주요 저자와 학회지 편집위원회로 있으면서 출판을 주도하여 영국, 호주 등을 비롯하여 유수의 세계 기록학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학술지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Archivaria』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학의 주요 주제영역에 있어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연구주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주제와 동향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 학회지에 발간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외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를 검색하여 2009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Archivaria』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연설문 및 서평, 참관기 등의 성격의 논문들은 제외한 총 75편의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량분석을 통해 75편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국가

별 분포와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연구논문의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과 연구주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특정 분야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적인 연구 분야와 학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박옥남, 2012).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에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0), Glaser(1998)가 제시한 근거이론의 귀납적 코딩과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들은 모두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여 한 줄씩 분석해 나가면서 기록관리학 주제영역과 초점 등에 대해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들끼리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일관성 있는 코딩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범주화를 수행하고, 확정된 분류범주를 활용하여 최종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국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연구내용과 분석이 『Archivaria』에만 제한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국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전체적인 연구영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후 국외 연구에 대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연구의 동향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방향과 연구 과제를 설계하는데 보다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국내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

석한 연구들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기록관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형성되고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현재,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성장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국내 기록관리학 동향 연구를 본다면, 크게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전반에 걸친 연구영역, 연구자, 연구방법의 분포 등 발전양상을 조사한 연구와 정성적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의 세부 주제영역의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정량적인 분석방법으로 국내 기록관리학의 전반적인 발전 양상을 조사한 연구들은 2005년에 김희정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저자동시인용빈도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을 기점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2007)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의 145편의 논문을 문헌클러스터링과 문헌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지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4종 399편의 논문을 주제영역과 키워드 빈도를 통해 분석했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국내 3종의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 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37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주제 영역과 연구배경 정보, 연구자 특성정보(소속 및 전공) 등을 분석하였다.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주제 영역의 분포와 경향을 분석하였다.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기록관리학 전체 논문의 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주제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다. 기록관리학 주제 영역은 초기에는 법률, 제도, 정책, 보존에 집중적이었으나(남태우, 이진영, 2009; 김규환, 남영준, 2009) 점차 전자기록관리, 디지털 보존, 정보서비스로 연구의 영역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이 확인됐다(이재윤, 문주영, 김희정, 2007;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연구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단독연구가 주를 이루고 이론과 원칙에 관한 기초영역 보다는 업무와 실무영역의 연구들로 치중되고 있었다(남태우, 이진영, 2009).

기록관리학의 세부 주제영역에 대해서 내용 분석을 통해 학문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 또한 다수 수행되어 왔다. 특히 한국기록관리학회는 2011년부터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록학 연구의 성과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동향 분석 논문들을 발표하였다(최재희, 2011; 이소연, 2011, 2013; 설문원, 2012; 강순애, 2013). 기록평가, 기록분류, 전자기록, 디지털보존, 기록관리 역사 등 기록관리학의 핵심 주제영역을 선정하고 지금까지 모두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록물 평가론에 대하여, 최재희(2011)는 3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록학 분야에서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 전문가들의 참여가 급감했으며 이론과 실무의 불일차를 지적하였다. 전자기록에 관해서 이소연(2011)은 57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8가지 세부 주제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문원(2012)은 기록분류와 관련된 35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분야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

고, 해외 연구 동향, 국내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소연(2013)은 디지털 보존 연구에 대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나 보존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논문 115건을 선정하고 일반 연구, 정책 연구, 기술 연구와 디지털 자원 유형별 연구의 4가지 주제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강순애(2013)는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으로서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개관하고,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 및 기록관리 관련 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선정한 후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정성적인 기록관리학 동향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은, 실무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록분류와 디지털보존 주제영역에서 이론적 모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고 있어 공통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였다(설문원, 2012; 이소연, 2013).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의 특징은 실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고 주로 해외 사례 소개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 기록평가 영역의 연구들을 비롯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지적하며, 기록관리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진,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에서 국외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향을 조명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윤은하(2011)는 북미 기록학의 동향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1970년부터 이루어지는 북미 기록학계의 변화들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역사학, 문헌정보학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인식, 기록방식, 기록학 원칙 등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다원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기록학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북미 연구의 동향 변화의 큰 흐름을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그 내용과 접근방식 등에 있어서 보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의 과제와 방향을 검토하는 분석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Archivaria』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학의 주요 주제영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정량분석

3.1 연구자별 분포

『Archivaria』 학술지 논문에서 2009년(67권)부터 2014년 9월(77권)까지 출판된 연구논문

은 총 75편이다. 『Archivaria』는 연간 2회 간행되며, 매 호마다 5-6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1년에 한 두 차례 특집호를 기획하여 특정주제 관련 논문을 함께 수록하여 발간한다(〈표 1〉 참조). 최근 5년간 발행된 특집호는 6권으로, 2009년에는 캐나다 행동주의 문화 기록(activism in Canadian cultural archives, 67권), 퀴어기록(queer archives, 68권), 2010년에는 기록과 법(archives & law, 69권), 2011년에는 디지털기록(digital archives: permanent change preservation? 72권), 2012년 기술 및 정리(arrangement & description, 74권), 2013년에는 개인기록(personal archives, 76권)에 관한 특집 주제를 다루었다.

『Archivaria』의 최근 5년간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103명이며, 이 중 2편 이상 게재한 중복된 연구자를 제외하면 93명이다. 연구 당 저자 수는 대부분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단독논문과 공저를 포함하여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9명에 불과하였다. 연구자를 살펴보면, 55편이 단독연구자의 논문이고 20편이 공동연구 성과물로 단독연구자의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공동연구 논문 20편 중, 2인 저자가 13편, 3인 저자가 6편, 4인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1편이었다. 〈표 2〉와 〈표 3〉은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국적을 정리한 것이다. 『Archivaria』는 저자의 소속기관이 논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

〈표 1〉 연도별 논문 게재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1	12	13	11	13	5	75

* 2014년은 조사 기간인 9월까지 출판된 『Archivaria』 75권만을 대상으로 함

〈표 2〉 연구자의 소속기관

구분	저자 수(%)	주요 기관명(소속 저자 수)	
대학교	62 (66.7%)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8)	New York University(2)
		University of Toronto(5)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2)
		Carleton University(3)	UCL(2)
		Simon Fraser University(3)	Universite Laval(2)
		Universite de Montreal(3)	University of Manitoba(2)
		University of Pittsburgh(3)	Western University(2)
		University of Maryland(2)	Yale University(2)
		Monash University(2)	Dalhousie University(2)
기관	18 (19.3%)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2)	American Medical Association(1)
		Queen's University Archives in Kingston(2)	Archivist of University College(1)
		Library and Archives(2)	Bibliothèque nationale du Québec BAnQ(1)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1)	Government Records Branch(1)
		Parks Canada(1)	The Newberry Library(1)
		Religious Hospitallers of Saint Joseph Health System(1)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1)
		Special Interest Section on Access and Privacy Issues(1)	Turkish Summer School in Cunda(1)
		West Yorkshire Playhouse(1)	

〈표 3〉 국가별 연구자 분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계
미국	5	5	6	2	6	2	26
캐나다	13	6	6	4	5	2	36
호주	-	-	1	-	1	1	3
영국	2	1	1	4	-	-	8
터키	-	-	-	-	1	-	1

* 2014년은 조사 기간인 9월까지 출판된 『Archivaria』 75권만을 대상으로 함

아서, 논문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Scopus에 등록된 연구자의 소속기관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소속기관이 파악된 연구자는 전체 93명 중, 80명(86%)이었으며 그 중 대학교에 소속된 전문그룹(62명, 66.7%)과 기관에 소속된 그룹(18명, 19.3%)으로 구분되었다.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캐나다, 미

국의 비중이 높으며 호주, 영국, 터키 등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표 4〉는 5년간 발행된 『Archivaria』 6권의 특집호를 기획하고 주도한 객원 편집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거의 매년 기록관리학에 관련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하여 주제 아키비스트, 법률전문가, 디지털아키

〈표 4〉 『Archivaria』 특집호의 객원 편집자

년도(권)	특집호주제	Guest Editor
2009년 (67권)	캐나다 행동주의	Garay, K. - 아키비스트이자 McMaster University 교수 - 2005년 Canadian Conference Series 비엔날레 아카이브 조직운영 Verduyn, C. - 2005년 Canadian Conference Series 비엔날레 아카이브 조직운영
2009년 (68권)	퀴어기록	Barriault, M., - Library and Archives Canada의 Economic and Governance Archives Section Manager Sheffield, R. -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CLGA) 커뮤니티 참여위원
2010년 (69권)	기록과 법	Dryden, J. - University of Maryland 교수 MacDonald, L. - University of Toronto 아키비스트 -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 부회장
2011년 (72권)	디지털기록	Matienzo, M.A. - Yale University Library 디지털아키비스트 - ArchivesSpace Project의 테크니컬 아키텍(Technical Architect)
2012년 (74권)	기술 및 정리	Eastwood, T. - InterPARES 프로젝트 연구자 - Archivaria 편집위원(1981-1982), The Archivist Library Series 편집장 - 캐나다 보존기록물 기술표준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개발 준비위원, Canadian Archivists' Working Group on Archival Descriptive Standards 공동의장
2013년 (76권)	개인기록	Carter, R.G.S, et al. -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 Special Interest Section on Personal Archives(SISPA)

비스트 등이 주도하여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실무 현장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키워드 분석

『Archivaria』는 저자가 부여하는 키워드가 논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자가 75편의 논문의 제목, 초록, 본문을 확인하고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설정하였다. 키워드는 『Archivaria』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서 저자가 사용한 용어를 우선으로 1차로 논문 당 2개에서 5개까지 추출하였으며, 1차 키워드에 대해 주제 또는 내용성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의어와 유사어 키워드의 통제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총 295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Archivaria』 논문에 나타난 키워드를 빈도순으로 배열하면, 디지털기록(digital records management, 9.5%), 기술 및 정리(arrangement and description, 7.8%), 기록관리이론(archival theory, 3.7%), 사례연구(case studies, 3.1%) 퀴어기록(queer records, 2.7%), 소셜미디어(social media, 2.4%), 개인기록(personal archives, 2.4%)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같이 분석대상 기간의 특별호 주제가 디지털기록, 기술 및 정리, 퀴어기록, 개인기록임을 감안하여, 키워드 분포를 다시 살펴보면

기록관리이론, 사례연구, 소셜미디어, 원질서의 법칙, 진본성 등이 전반적으로 모든 주제영역에 걸쳐 다루어지는 주요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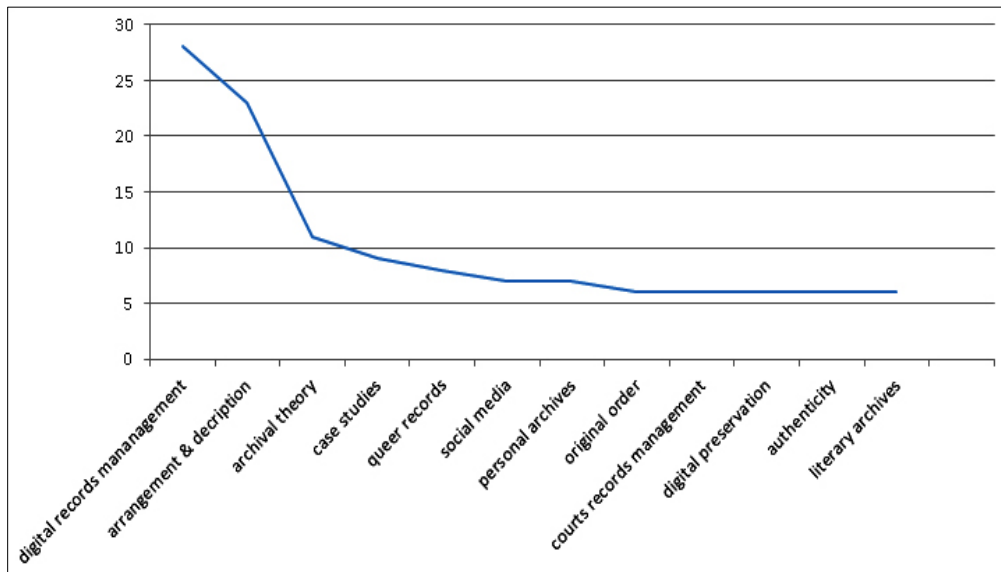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Archivaria』 논문의 연구 주제영역을 다음의 <표 5>와 같이 크

게 3가지 영역,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기술, 기록물 유형으로 구분하고, 14개의 주제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Archivaria』 논문의 주제 키워드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표 5>를 근거로 <그림 1>을 작성하였다.

<표 5> 『Archivaria』 학술논문 키워드 분석

구분	주제영역	세부주제	관련 주제어
기록 관리 일반	기록관리 이론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리의 기초이론 (연속성모델, 기록생애주기모델) 기록관리의 원칙(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 Jenkins/Schellenberg 이론) 기타이론 (사회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diplomatic, modern archival theory, postmodern theory, postcutodial theory, continuum approaches, life-cycle model, Jenkinson theory, Schellenberg theory, Fields of vision theory, critical theory, queer theory, continuum approaches, the banality of evil theory, multi-faceted theory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리 관련법률 교육 디지털보존/아카이빙 교육, 교수방법 	DigCCurr, digital curation curriculum, digital archiving pedagogy, active learning
	정책·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 및 폐기 관련 정책·법률 기록관리 접근 관련 정책·법률 전자기록의 증거적 제시 (e-discovery) 관련 법률 	legal issues, copyright, PROV, Canadian E-Discovery, Crimes(Document Destruction) Act, Access to Information Act,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and Privacy, Uniform Electronic Evidence Act(Canada)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리 역사 일반 기록관리 기술/시스템 역사 	custodial history, oral history, record keeping systems in the 1920s, Pittsburgh Photographic Library, Arthur Doughty
기록 관리 기술	수집/선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의 가치 해석 방법 및 절차 제도 	disposition, appraisal, acquisition
	정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규칙 메타데이터 Fonds 방법론 	RAD, RAD2, ISAD(G), indexing & cataloging, social order, personal fonds, arrangement, description, PIM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검색/outreach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연구 서비스 관련 법, 제도, 윤리 	finding aids, representation, outreach, usage patterns, platform functionality, social media, twitter, facebook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록관리 전략 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기능요건 	electronic records, record keeping system, personal digital archiving, hybrid systems, integrated access systems, record system, system requirements, storage technologies, repository
	보존/ 디지털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보존전략, 보존사례 디지털아카이빙 전략, 방법론 관련 교육 	InterPARES, preservation, digital curation, authenticity, digital records forensics, digital diplomatics, emulation
기록물 유형	정부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기록(캐나다, 미국, 스위스) 공공기록물 관리 정책 	government records,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record office, Provincial Archives of Alberta

구분	주제영역	세부주제	관련 주제어
기록물 유형	개인/일상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일상 기록물 사례연구 • 개인기록 fonds 	personal records, writer's records, diary, open personal fonds, private archives,
	주제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작품 기록 • 문학기록 • 퀴어기록 • 여성운동기록 	feminist activism, Bar Room Suffragettes, culturally mediated records, second-wave women's movement, artist's records, independent media art works
	시대/지역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원주민 기록 • 인도 식민시대 기록 • 이민문화기록 • 밴쿠버 동계 올림픽 기록 	City of Vancouver Archives, colonial contract records, immigrants' records, cultural communities, Aboriginal rights, social memory, 2010 Olympic and Paralympics Winter Games(VANOC), Indigenous rights
	특수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록물 • 학교기록물 • 사진기록물 • 지도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government records, legal records, court records, photographic records, cartographic record, school district records, admissibility, audiovisual documents, visual records, map cataloging



〈그림 1〉 『Archivaria』 논문의 키워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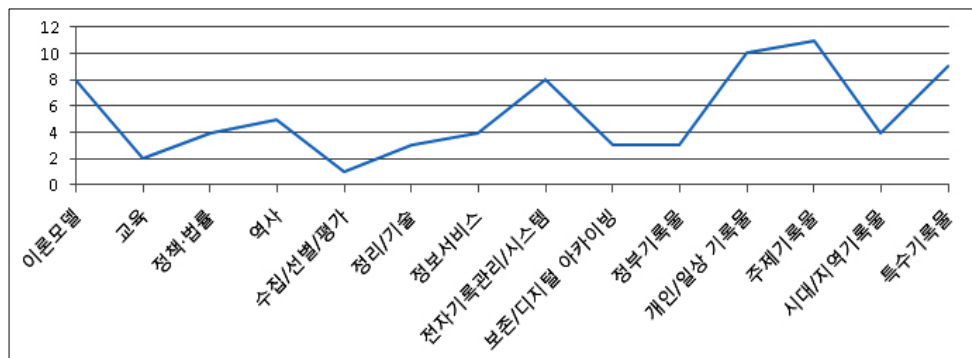
3.3 기록관리 연구 영역 분석

연도별로 『Archivaria』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기술, 기록물 유형의 주제 영역 중 기록물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총 37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서도 주제 기록물과 개인·일상 기록물이 각각 11편, 10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정부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다. 기록관리 일반 영역과 기록관리 기술 영역에 관한 연구는 각각 19편으로 이론과 실무

〈표 6〉 『Archivaria』 논문의 연도별 연구 주제

주제범주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기록 관리 일반	이론모델		3	1	1	1	1	1	8(10.7)
	교육				2				2(2.7)
	정책·법률			3				1	4(5.3)
	역사			1		1	3		5(6.7)
	소계		3	5	3	2	4	2	19(25.3)
기록 관리 기술	수집/선별/평가				1				1(1.3)
	정리/기술					3			3(4.0)
	정보서비스			2			2		4(5.3)
	전자기록관리/시스템		1		4	2		1	8(10.7)
	보존/디지털아카이빙		2			1			3(4.0)
	소계		3	2	5	6	2	1	19(25.3)
기록 유형	정부기록물			1	1		1		3(4.0)
	개인/일상기록물		1	1	1	1	5	1	10(13.3)
	주제기록물		8			1	1	1	11(14.7)
	시대/지역기록물		1	1	2				4(5.3)
	특수기록물		5	2	1	1			9(12.0)
	소계		15	5	5	3	7	2	37(49.3)
총계			21	12	13	11	13	5	75(100)



〈그림 2〉 『Archivaria』 논문의 주제 영역 분포

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rchivaria』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주제영역은 백분율 순위에 따라 주제기록물(14.7%), 개인·일상기록물(13.3%), 특수기록물(12.0%), 이론모델(10.7%), 전자기록관리·시스템(10.7%), 역사(6.7%), 정책·법률(5.3%), 정보서비스(5.3%),

시대·지역 기록물(5.3%), 정리·기술(4.0%), 보존·디지털아카이빙(4.0%), 정부기록물(4.0%) 순으로 나타났다. 『Archivaria』 논문의 주제영역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6〉을 근거로 〈그림 2〉를 작성하였다.

4. 내용분석

동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Archivaria』의 연구논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기술, 기록물 유형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14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었다. 각 범주 안에서는 출판연도 순으로 서술하여 각 주제 영역 내에서의 연구

4.1 기록관리 일반

기록관리 일반 연구로 범주화된 것은 이론모델(8편), 교육(2편), 정책·법률(4편), 역사(5편)로 총 19편이었다(〈표 7〉 참조).

〈표 7〉 기록관리 일반 연구

주제영역	저자(연도)	제목	세부주제
이론 모델	Fisher, R. (2009)	In Search of a Theory of Private Archives: The Foundational Writings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Revisited	Jenkinson, Schellenberg
	Duncan, C. (2009)	Authenticity or bust	사회구성주의
	Maynard, S. (2009)	Police/Archives	퀴어이론
	Caswell, M. (2010)	Hannah Arendt's World: Bureaucracy, Documentation, and Banal Evil	악의평범성 이론
	Upward, F., McKemmish, S., & Reed, B. (2011)	Archivists and changing social and information spaces: A continuum approach to recordkeeping and archiving in online cultures	연속성모델
	Lemay, Y. & Klein, A. (2012)	Mémoire, archives et art contemporain	포스트모던이론
	McKemmish, S. & Piggott, M. (2013)	Toward the Archival Multiverse: Challenging the Binary Opposition of the Personal and Corporate Archive in Moder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연속성모델, 생애주기모델
	Lemay, Y. & Klein, A. (2014)	Les archives définitives: un début de parcours Revisiter le cycle de vie et le Records continuum	연속성모델, 생애주기모델
교육	Lee, C.A. & Tibbo, H. (2011)	Where's the Archivist in Digital Curatio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through a Matrix of Knowledge and Skills	디지털보존/ 아카이빙 교육(DigCCurr)
	Galloway, P. (2011)	Educating for Digital Archiving through Studio Pedagogy, Sequential Case Studies, and Reflective Practice	디지털보존/ 교수법
정책·법률	Duranti, L, Rogers, C., & Sheppard, A. (2010)	Electronic Records and the Law of Evidence in Canada: The Uniform Electronic Evidence Act Twelve Years Later	전자기록의 전자적증거개시법
	Force, D.C. (2010)	From Peruvian Guano to Electronic Records: Canadian E-Discovery and Records Professionals	전자기록의 전자적 증거개시법
	Sinclair, K. (2010)	Victoria: The Keep-It-All State? The Impact on Archives of the Crimes (Document Destruction) Act 2006 and the Evidence (Document Unavailability) Act 2006	호주빅토리아기록법
	Dryden, J. (2014)	Just Let It Go? Controlling Reuse of Online Holdings	저작권정책
역사	Henderson, J. (2010)	"I Am Pleased with the Lambton Loot": Arthur George Doughty and the Making of the Durham Papers	19세기 캐나다 기록관리역사
	Darwall-Smith, R. & Riordan, M. (2012)	"Bad and Dangerous Work": Lessons from Nineteenth-and Early-Twentieth-Century Oxford Archives	19-20세기 초 기록 기술 정리 역사
	Heil, J.M. (2013)	The Procrustean Bed: A History of the Arrangement of the Al Purdy Fonds	20세기 기록 기술 정리 역사
	Shumilak, A. (2013)	A System of Their Own: Records Creation and Recordkeeping in Canada's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in the 1920s	20세기 캐나다 외교 기록관리 역사
	Rusell, B. (2013)	Study in documents Indian department headquarters records, 1844-1861: A case study in recordkeeping and archival custody	19세기 인도총독부 기록관리 역사

4.1.1 이론모델

이론모델을 다루고 있는 『Archivaria』 논문은 모두 8편으로, 기록관리 이론과 원칙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와 사회과학 분야의 타 이론을 기록관리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기록관리 이론모델로 가장 많이 논의 되는 것은 기록의 생애주기모델과 원질서의 원칙으로, 기록의 조직과 평가의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 기록관리 관련 이론과 원칙들이 디지털기록과 소셜 미디어로부터 생산되는 개인 기록관리에 적용가능한지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Fisher(2009)은 민간 기록영역에 있어 켄킨스와 셸런버그의 이론의 적용 여부를, McKemish와 Piggott(2013)는 개인 기록과 업무 기록관리에 있어서 기록의 연속성 모델과 생애주기 모델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기록 환경 변화에 따라 기록관리 원칙과 사고에 반론을 제기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이론적 접근을 제안하는 시도들이 2009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Klein와 Lemay는 2012년에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아카이브의 본질은 사회적 기억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억기관(memory factories)', '기억장치(memory medicum)'에 있음을 밝히고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어서 2014년에는 기록관리의 연속성 모델과 생애주기 모델을 비판하며 기록관리 원칙을 새롭게 조명하는 논문을 공동 발표하였다. 이들은 변화된 디지털환경에서 기록의 의미를 보다 많은 이용자층에게 확산시키고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속성 모델의 4가지 요소, 'a framework', 'emotion', 'terms and

conditions of use', 'dialectic vision of archives'에 새로운 요소인 'use of archives'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학의 이론 외 다른 학문분야의 이론들을 도입하여 기록관리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Caswell(2010)은 Hannah Arendt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론을 도입하여 기존의 관료주의 중심의 기록관리 실무를 비판하고 기록관리 원칙에 대한 재해석을 주장하였다. '악의 평범성'이론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다수 의견에 따르려 하는 경향으로 행동하게 되며, 그 행동의 결과는 악의 진부함을 낳는다. 이처럼 안일하고 수동적인 기록관리 업무의 결과는 기록평가, 보존, 접근 과정에 있어서 기록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지난 다원적인 의미를 모색하고 기록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접근과 방법론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1.2 교육

분석 대상 연구 중 교육을 다룬 연구는 2편이다. 2편 모두 2011년 『Archivaria』 72권 특별호 'Digital archives(permanent change-preservation?)'에 게재된 것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수방법을 다루고 있다.

Lee와 Tibbo(2011)는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영역을 제시하였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UNC)의 디지털보존 교육 커리큘럼 개발 프로젝트인 DIgCCurr (Preserving Access to Our Digital Future: Building an International Digital Curation

Curriculum)의 지식/실무 매트릭스를 도출하게 된 이론과 원칙, 방법론 등을 설명하고 보존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하는 핵심 교육영역과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기록보존에 대한 관심이 탈보관주의와 연속체론적 평가 지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기록실무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 디지털 보존의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큐레이션으로의 교육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Galloway(2011)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School of Information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수업을 사례로 하여, 실습중심의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능동적 학습법(active learning)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교육내용의 핵심 영역으로 컴퓨터와 보존 연구의 역사, 연구방법론, 디지털 객체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4.1.3 정책·법률

분석 대상 연구 중 기록관리의 정책·법률을 다룬 연구는 4편이다. 기록관리 정책·법률에 관한 연구는 기록관리 업무와 관련한 법률과 전자기록의 증거개시(e-discovery) 관련 법률을 다룬 연구로 나뉘었다.

Sinclair(2010)는 2006년 호주의 Crimes(Document Destruction) Act와 Evidence (Document Unavailability) Act가 호주 빅토리아주 PROV(Public Record Office Victoria)의 기록의 수집·폐기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였다. Dryden(2014)는 미국 리포지토리의 저작권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98개의 리포지토리 웹사이트를 분석하고, 담당자와의 설문조

사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기록관은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권한에 대한 조건 명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록물 이용과 접근에 대한 보다 일관적인 저작권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오늘날 IT의 발달로 기록이 대거 디지털매체로 생성되고 있어 전자기록이 종이매체와 같이 증거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1997년 'Uniform Electronic Evidence Act'를 제정하고, '법은 사람들이 그들의 업무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증거로서의 전자기록을 허용하였다. 전자기록의 특성상 정확성에 관한 직접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로서 기록의 정확성을 추정하고 있다. Duranti, Rogers와 Sheppard(2010)는 증거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높은 신뢰수준의 진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Uniform Electronic Evidence Act로는 이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록관리전문가, 법률 집행 전문가, IT 전문가의 밀접한 협력 아래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의 엄격하고 철저한 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orce(2010) 또한 캐나다의 전자기록의 전자적 증거개시(e-discovery)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의 검색, 접근 서비스, 보존을 비롯한 전자 기록관리 실무에 걸쳐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1.4 역사

분석 대상 연구 중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연구는 5편으로, 캐나다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던 19, 20세기의 기록관리 역사를 다루고 있었다.

Henderson(2010)는 20세기 캐나다 아키비스트 George Doughty가 1838년 캐나다 총독으로 부임한 영국 정치인이자 귀족인 더럼 경(Lord Durham)에 관한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캐나다 공공기록청(Public Archives of Canada)의 Durham Papers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였다. Shumilak(2013)는 1920년대 캐나다 외교부(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의 기록관리제도의 역사를 다루었다. Russell(2013)는 19세기 후반 인도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의 역사리뷰를 통해 현재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의 현용 기록, 준현용 기록, 보존의단계별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기록의 분류와 정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Darwall-Smith와 Riordan(2012)은 19, 20세기의 옥스퍼드 아카이브의 목록편찬에 대해서, Heil(2013)는 온타리오주의 Al Purdy 풍의 구성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19, 20세기 특정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 그 당시 사용되었던 주제에 따른 기록물 분류방법은 기록 생산에 대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여 기록의 증거적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역사적 리뷰를 통해 기록의 기술, 정리 측면에서 기록의 내용 위주의 분류가 아닌 기록 원래의 생산 환경을 존중하는 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 중심의 기록 정리, 분류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4.2 기록관리 기술

기록관리 기술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전략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 기록관리 과정에 따라 수집/선별/평가, 정리/기술, 정보서비스, 전자기록관리, 보존/디지털 아카이빙으로 범주화하였다. 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이론과 개념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모델로 분류하고, 기록관리 과정에 있어서 세부 과정만을 중점으로 하여 방법과 전략의 개선을 목적으로 기본적 원칙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기술영역의 해당 과정 주제로 분류하였다(〈표 8〉 참조).

4.2.1 수집 · 선별 · 평가

분석대상 논문 중 수집 · 선별 · 평가에 관한 연구는 1편이다.

Caron와 Brown(2011)은 비판이론(critical theory) 관점에서 기존의 기록관리의 선별과 평가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 숨겨져 있는 전체주의적 요소를 비판하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제약 하에서 기록의 선별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에서 거대담론으로부터 외면당한 기억과 기록을 회복할 수 있는 선별,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 수집 · 선별 · 평가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기록의 가치를 해석하고 기록관리의 역할을 정의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여러 주제 분야에 분산되어 나타났다. 특히 개인 · 일상기록물이나 퀴어 기록물, 여성운동 기록물 등 주제 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기록물들을 수집, 선별하는 원칙에 대한 논의를 공통적으로

〈표 8〉 기록관리 기술 연구

주제영역	저자(연도)	제목	세부주제
수집·선별·평가	Caron, D.J. & Brown, R. (2011)	The Documentary Moment in the Digital Age: Establishing New Value Propositions for Public Memory	선별평가이론
	Dancy, R. (2012)	RAD Past, Present, and Future	RAD 기술규칙
정리·기술	Yeo, G. (2012a)	Bringing Things Together: Aggregate Records in a Digital Age	디지털기록분류
	Yeo, G. (2012b)	The Conceptual Fonds and the Physical Collection	디지털기록분류
정보서비스	Crymble, A. (2010)	An Analysis of Twitter and Facebook Use by the Archival Community	Twitter, Facebook 이용자서비스
	Dryden, J. (2010)	What Canadian Archivists Know About Copyright and Where They Get Their Knowledge	저작권
	Duff, W.M., Johnson, C.A., & Cherry, J.M. (2013)	Reaching Out, Reaching I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Archives' Use of Social Media in Canada	소셜미디어 활용서비스
	Mathias, J. (2013)	Improving Access to the Records of Landed Estates: Balancing Archival and User Perspectives	토지대장 온라인검색
전자기록관리	Timms, K. (2009)	New Partnerships for Old Sibling Rival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ccess Systems for the Holding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라키비움시스템
	Trace, C.B. (2011)	Beyond the Magic to the Mechanism: Computers, Materiality, and What It Means for Records to Be "Born Digital"	전자기록관리전략
	Mas, S., Maurel, D., & Alberts, I. (2011)	Applying Faceted Classification to the Personal Organization of Electronic Records: Insights into the User Experience	보안/디지털포렌식
	Levi, C. (2011)	Notes and Communications five hundred 5.25-inch Discs and one (Finicky) machine: A report on a legacy e-records pilot project at the Archives of Ontario	보안/디지털포렌식
	Cunningham, A. (2011)	Good Digital Records Don't Just "Happen": Embedding Digital Recordkeeping as an Organic Component of Business Processes and Systems	전자기록관리전략 (호주 NA)
	Zhang, J. (2012)	Original Order in Digital Archives	RMS
	Mak, B. (2012)	On the Uses of Authenticity	진본성
	Millar, L. (2014)	Coming Up with Plan B: Considering the Future of Canadian Archives	전자기록관리전략 (LAC)
	보존·디지털아카이빙	Duranti, L. (2009)	From Digital Diplomats to Digital Records Forensics
Hawkins, K. (2009)		Reflections on InterPARES a pattern language for electronic records	InterPARES
O'Meara, E. & Tuomala, M. (2012)		Finding Balance Between Archival Principles and Real-Life Practices in an Institutional Repository	California Digital Repository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기록물의 유형에 분류하고, 해당 주제 영역에서 각각 그 연구 내용과 특성을 논의하였다.

4.2.2 정리/기술

분석대상 논문 중 기록의 정리·기술에 관한 논문은 3편이다. 이들은 모두 전자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디지털환경에서 출처주의와 원질서주의, 다계층 기술 등의 전통적인 기록관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기록의 맥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RAD, ISAD(G)과 같은 기술규칙, 메타데이터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Dancy(2012)은 캐나다 아카이비스트 협회와 각국의 기록관리기관과의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의 제정에서부터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RAD2가 수정을 통해 현장의 기술업무를 반영하고 출처 존중 원칙에 따른 기록물에 대한 집합적 기술 방법이 제공되었으나, 여전히 전자기록물과 종이기록물의 유형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RAD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Yeo(2012a, 2012b)는 디지털 기록의 분류에 있어서 유연한 집합체 구성이 가능하고 디지털 기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기술·정리에 반영하여야 하는 디지털질서(digital order)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가 두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자기록물 기술에 있어서 출처의 원칙에만 머무르지 말고 관련 있는 기록물들을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건들의 유기적인 상호관계까지 고려하여 기술, 정

리하라는 것이다. 즉 기록물의 물리적 통제에 해당하는 컬렉션과 개념적 분류의 틀인 품의 개념을 디지털 기록의 분류와 기술·정리 업무에서도 적용하여, 전자기록의 생산 과정과 관련이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 기록의 가치에 따른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4.2.3 정보서비스

분석대상 논문 중 기록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4편이다. 정보서비스에 대한 논문은 크게 이용자서비스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소셜 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연구와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이용자 검색서비스를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기록물을 이용하는 정보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법률, 제도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SNS 활용에 관하여 Crymble(2010)는 195명의 기록관의 기관과 개인 이용자의 Twitter와 Facebook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32일간의 데이터를 관찰, 분석한 결과, SNS 이용패턴은 Facebook을 이용하는 기록관과 Twitter를 이용하는 기록관, Twitter를 쓰는 아카이비스트의 행태로 구분되었다. 기록관은 Facebook이나 Twitter를 기관에서 제작한 기록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개인 아카이비스트는 SNS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서비스와 확장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Duff, Johnson와 Cherry(2013)는 5차례에 걸쳐 이용

자와 아키비스트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연구를 수행하고, 캐나다 아카이브의 소셜 미디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이용자와 아키비스트들은 소셜 미디어의 잠재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참여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무엇보다 기록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소극적인 태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록물 유형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2편으로, 각각 지도 기록물과 토지대장의 검색도구를 다루었다. Janes(2012)는 영국 국립보존소(National Archives)에서 개발된 지도 목록시스템과 디지털 검색도구를 사례로 들어, 기록정보 검색도구들이 종이기록의 접근과 검색 방식에만 머물러있음을 지적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지도 기록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검색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athias(2013)의 토지대장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연구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여전히 종이기록물 형태를 선호하고 종이기록물 방식의 검색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라인 검색도구와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그는 종이기반과 온라인 환경의 검색도구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4.2.4 전자기록관리

분석 대상 논문 중 전자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는 8편이다.

최근 5년 동안 전자기록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Archivaria』 연구논문은 주로 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Mas, Maurel와 Alberts(2011), Levi(2011)는 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기록관리에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전자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기록의 본질인 진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록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Mak(2012)는 디지털 기록의 진본성 개념에 대해 여러 학문분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담론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전자기록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진본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록의 진본성이란 디지털 기록의 큐레이션과 활용 측면에서 기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즉 사회적 질서(social order)를 확보, 관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본성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특정 기록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Timms(2009)는 기록관, 도서관, 미술관 정보를 통합 검색, 이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Cunningham(2011)는 호주 국가 기록보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업무시스템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전자기록전략을 제안하였다.

4.2.5 보존·디지털아카이빙

분석 대상 논문 중, 보존·디지털아카이빙에 관한 논문은 3편이다. 보존과 아카이빙은 2011

년 72권의 특별호 주제로 그 해에만 편중되지 않고 5년간 교육, 주제기록, 개인 기록, 시대·지역 기록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지속적인 관심분야이었다. 디지털 보존과 아카이빙은 앞서 살펴본 교육 주제영역에서 나타나듯 기록의 전문적인 보존 개념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큐레이션 등 학제적 담론 연구를 비롯하여 그 내용과 주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uranti(2009)와 Hawkins(2009)는 InterPARES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디지털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장기보존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기록의 보존전략에 대해서 두

학자의 접근은 달랐는데, Duranti(2009)은 전통적인 Diplomatic이론을 통해 진본성과 신뢰성을 규명하는 방안을, Hawkins(2009)는 시맨틱 웹 표준과 기술을 디지털 기록에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4.3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의 유형 연구로 범주화된 것은 정부기록물(3편), 개인/일상기록물(10편), 주제기록물(11편), 시대/지역 기록물(4편), 특수기록물(9편)로 총 19편이다(〈표 9〉 참조).

정부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총 3편으로 German

〈표 9〉 기록물 유형에 관한 연구

주제영역	저자(연도)	제목	세부주제
정부 기록물	German, D. & Dozois, P. (2010)	Doughty on the use and ut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archives, 1933	미국 연방기록물
	Caron, D.J. & Kellerhals, A. (2011)	Supporting Democratic Values Through a Relevant Documentary Foundation - An Evolutionary Complex	스위스, 캐나다 정부기록물
	Bailey, C.A. (2013)	Past Imperfect? Reflections on the Evolution of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cords Appraisal	캐나다 연방기록물
개인·일상 기록물	Douglas, J. & MacNeil, H. (2009)	Arranging the Self: Literary and Archival Perspectives on Writers' Archives	작가기록물
	Meehan, J. (2010)	Rethinking Original Order and Personal Records	개인기록정리기술
	Carroll, L., Farr, E., Hornsby, P., & Ranker, B. (2011)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orn-Digital Archives	작가기록물
	Harris, C. (2012)	Paper Memories, Presented Selves: Original Order and the Arrangement of the Donald G. Simpson Fonds at York University	작가기록물
	Douglas, J. (2013)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Original Order in Writers' Archives	작가기록물
	Barriault, M. (2013)	Respect Which Fonds? Personal Archives and Family Businesses in Nova Scotia	일상업무기록 정리
	Oestreicher, C. (2013)	Personal Papers and MPLP: Strategies and Techniques	일상업무기록 정리
	Bass, J. (2013)	A PIM Perspective: Leveraging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Research in the Archiving of Personal Digital Records	개인기록
	Cox, R.J. (2013)	Lester J. Cappon and the Creation of Records: The Diary and the Diarist	일기
	Acker, A. & Brubaker, J.R. (2014)	Death, Memorialization, and Social Media: A Platform Perspective for Personal Archives	개인기록관리

주제영역	저자(연도)	제목	세부주제
주제 기록물	Rawson, K.J. (2009)	Accessing transgender	퀴어기록물
	Gentile, P. (2009)	Resisted access? National security,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and queer(ing) archives	퀴어기록물
	Dick, L. (2009)	The 1942 same-sex trials in Edmonton: On the state's repression of sexual minorities, archives, and human rights in Canada	퀴어기록물
	Barriault, M. (2009)	Hard to dismiss: The archival value of gay male erotica and pornography	퀴어기록물
	Chenier, E. (2009)	Hidden from historians: Preserving lesbian oral history in Canada	퀴어기록물
	Ajamu, X., Campbell, T., & Stevens, M. (2009)	Love and lubrication in the archives, or rukus!: A black queer archive for the United Kingdom	퀴어기록물
	Prince, J. (2009)	The institution of the closet: The history of Quebec Gay Archives (AGQ)	퀴어기록물
	Zieman, K. (2009)	Youth outreach initiatives at the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	퀴어기록물
	Buchanan, A. (2012)	Cardiff and Miller's Road Trip (2004): Between Archive and Fiction	문학기록물
	Keenan, E.K. & Darms, L. (2013)	Safe Space: The Riot Grrrl Collection	여성운동기록물
	Dever, M. (2014)	Archiving Feminism: Papers, Politics, Posterity	여성운동기록물
시대·지역 기록물	Anctil, P. (2009)	Preserving unreadable: Sholem Shtern presences in Canadian literary life	이민문화기록물
	Lemay, Y. & Klein, A. (2010)	Les archives définitives: un début de parcours Revisiter le cycle de vie et le Records continuum	원주민, 식민주의 기록물
	Carroll, L., Farr, E., Hornsby, P., & Ranker, B. (2011)	A First Look at the Acquisition and Appraisal of the 2010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Fonds: or, SELECT * FROM VANOC_Records AS Archives WHERE Value= "true"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기록물
	Lindsay, A. (2011)	Archives and Justice: Willard Ireland's Contribution to the Changing Legal Framework of Aboriginal Rights in Canada, 1963-1973	원주민기록물
특수 기록물	Benson, A.C. (2009)	Killed Negatives: The Unseen Photographic Archives	사진기록
	Cook, K. (2009)	Little School on the Prairie: School District Records at the Provincial Archives of Alberta	학교기록
	Wozny, M.L. (2009)	National audiovisual preservation initiatives and the independent media arts in Canada	시청각기록
	Benichou, A. (2009)	Citizens use of urban spaces: Between news, archives and works	예술기록
	Darms, L. (2009)	The archival object: A memoir of disintegration	예술기록
	Belton, T. (2010)	Custody, Control, and Confusion: Legal, Historical, and Territorial Aspects of Court Records in Ontario	법정기록
	Carter, R.G.S. (2010)	"Ocular Proof": Photographs as Legal Evidence"	법정기록
	Conway, P. & Punzalan, R. (2011)	Fields of Vision: Toward a New Theory of Visual Literacy for Digitized Archival Photographs	사진기록
Janes, A. (2012)	Of Maps and Meta-Records: Eighty-Five Years of Map Cataloguing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지도기록 이용자연구	

와 Dozois(2010)는 미국 연방기록물의 역사에 대하여, Bailey(2013)는 캐나다 연방기록물에 대하여 정부기록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록관리제도와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Caron와 Kellerhals(2011)는 스위스, 캐나다 양국의 행정제도와 기록물 관리 제도의 발

전 역사를 비교하며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기록의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개인 기록은 『Archivaria』 76권 특별호의 주제이었던 2013년 게재된 논문 5편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어 모두 10편으로 분석됐다. 개인, 일상 기록의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개인기록에 대해서는 작가의 문학적 기록에 대한 수집·정리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상기록에 대해서는 대부분 디지털환경에서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기록을 어떻게 수집,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Harris(2012)와 Douglas(2013)는 작가의 기록을 수집하여 컬렉션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록이 문학작품의 일부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집자의 질서보다는 생산자별로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는 품의 원칙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의 일상 기록에 대해서 Acker와 Brubaker(2014)는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의 맥락을 포착하여 기술하여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기록물은 크게 퀴어 기록, 여성운동 관련 기록, 문학기록으로 구분되었다. 퀴어 기록은 『Archivaria』의 68권(2009)년 특별호의 주제로 총 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문학기록물은 1편, 여성운동기록은 2편이다. 주제 기록물에 대한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기록물들의 수집·선별에 관한 원칙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 주제 아카이브의 기록 관리 역사를 리뷰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려는 과거의 고민을 통해 현재 직면

하고 있는 기록의 본질과 기록관리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퀴어 기록이라는 주제는 그동안 외면당했던 소수 공동체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변화된 기록 관리의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좋은 주제로 기록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대해 Rawson(2009)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관한 주제 기록물에 있어서는 Keenan와 Darms(2013)은 Riot Grrrl이라는 1990년대 초기 10대 청소년들의 페미니스트 공동체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 기증자의 프라이버스와 아카이브 보존 관점에서의 접근성 간의 갈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Dever(2014)은 호주 국립도서관의 여성운동가 Merle Thornton의 개인 아카이브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과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시사하였다. Buchanan(2012)는 기록사료가 'Road Trip'이라는 문학작품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록의 가치와 의미의 다양성(layers of meaning)을 강조하였다.

시대/지역 기록물은 모두 4편으로 이민문화 기록물, 원주민 역사기록,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관련 기록물로 분류되었다. Lemay와 Klein(2010)는 캐나다 이민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고 캐나다 국가의 문화적 다원성을 기록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사례로 Library and Archives에 소장되고 있는 작가 Sholem Shtern의 아카이브를 소개하였다. Lindsay(2011)는 캐나다 원주민들의 식민계약 기록과 관련하여 기록의 증거적 가치를 강조하며 기록의 수집과

폐기에 내재돼 있는 권력의 불균형성과 편중성의 관계를 비판하였다.

특수 기록물은 모두 9편으로 기록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사진 기록, 시청각 기록, 지도 기록으로, 기록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학교기록, 예술기록, 법정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진기록에 대한 연구들은 기록의 증거적 가치에 대한 고찰(Carter, 2010)과 함께 기록의 재맥락화를 통해 기록의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Benson, 2009; Conway, & Punzalan, 2011)가 주를 이루었다. Benichou(2009)는 시청각 기록에 대해서, 독립 미디어 작품을 설계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사례로 하여, 시청각기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실무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Darms, L. (2009)은 공연,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생산되는 예술 기록의 질서와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록관리학 전문학술지인 『Archivaria』 학회지에 발간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최근 5년간 수행된 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논문의 주요 주제 영역에 대한 내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Archivaria』에 게재된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rchivaria』에 게재된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제시된 키워드는 분석대상 특별호 주제였던 전자기록, 개인기록, 정리 및 기술, 쿼어기록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외하고

기록관리이론, 사례연구, 소셜 미디어, 원질서의 법칙, 진본성 등이었다. 『Archivaria』에 게재된 연구 논문은 주제 및 간행시기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록관리학의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주제영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6권의 특별호가 간행되어 캐나다 행동주의 문화 기록, 쿼어기록, 법정기록, 디지털기록, 기술 및 정리, 개인 기록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주제의 분포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록관리 원칙과 이론모델 연구였으며, 디지털기록, 기술 및 정리, 개인 기록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해당 특별호에만 편중되지 않고, 5년간 『Archivaria』에 게재된 연구논문 전반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국내 기록관리학 동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론적 접근,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관리학 연구에 기록관리의 원칙과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의 한계점은 해외의 주요 이론과 원칙을 소개하고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 『Archivaria』 연구들은 원질서의 법칙, 출처의 법칙 등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이론이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한 기록관리 환경에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의 연속체 모델을 비롯하여 탈보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

서 기록의 활용을 강조하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과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고 여러 학문적 담론까지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도 해외의 이론적 모델을 단순히 소개하고 도입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의 문제를 해석하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론적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학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에 있어서 다각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선행연구 결과,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같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연구의 영역이 공공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Archivaria』의 연구의 접근 방식과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chivaria』는 특별호를 통해 캐나다 행동주의 문화기록, 퀴어 기록 등의 다양한 주제 기록물을 비롯하며, 이민문화기록, 원주민 기록 등 시대·지역 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거시적 기록관리 관점과 중앙집권식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 비판하며, 기록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공동체의 다양성의 가치를 기록관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기존의 경직되고 엄격한 공공기록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상대성을 수용하여 민간과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과 선별과 수집, 정리와 기술, 보존과 서비스 등 기록 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관리학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의 대부분은 이론전개와 사례 분석에 의한 연구이다. 이에 반해 『Archivaria』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다양한 아카이브 사례와 기록관리 경험을 중심으로 현재의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Mak(2012)는 담론분석을 통해 근대 기록관리에 대한 아키비스트 Daniel van Paperbroeck과 Jean Mabillon의 논쟁을 역사적으로 리뷰함으로써 현재 디지털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재해석을 제시하였다. Trace(2011)는 컴퓨터의 세부적인 비하인드 씬(the-behind-scenes) 작업에 대해 관찰된 장면의 면밀한 분석을 강조하는 미시적 문화기술지(micro-ethnography) 연구를 사용하여 디지털기록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처럼 설문연구나 사례분석 등의 획일적인 연구방법이 아니라 연구주제와 질문에 적합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함으로써, 기록관리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현장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애 (2013).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41-65.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3.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김희정 (2006). 국내의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박옥남 (2011). 정보조직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47-267.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 윤은하 (2011).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7-94.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 이소연 (2013).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47-283.
- 이재운, 문주영, 김희정 (2007).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45-372.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 Glaser, B.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Mill Valley, Cal.: The Sociology Press.
-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 Acker, A., & Brubaker, J. R. (2014). Death, memorialization, and social media: a platform perspective for personal archives. Archivaria, 77, 1-23.
- Bailey, C. A. (2013). Past imperfect? reflections on the evolution of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cords appraisal. Archivaria, 75, 5-47.
- Benichou, A. (2009). Les usages citoyens des espaces urbains : entre actualités, archives et oeuvres. Archivaria, 67, 115-142.
- Benson, A. C. (2009). Killed negatives: the unseen photographic archives. Archivaria, 68, 1-37.

- Buchanan, A.(2012). Cardiff and Miller's Road Trip (2004): between archive and fiction. *Archivaria*, 73, 19-41.
- Caron, D.J.,& Brown, R.(2011). The documentary moment in the digital age: establishing new value propositions for public memory. *Archivaria*, 71, 1-20.
- Caron, D.J.,& Kellerhals, A.(2011). Supporting democratic values through a relevant documentary foundation - an evolutionary complex. *Archivaria*, 71, 99-134.
- Carter, R.G.S. (2010). "Ocular proof": photographs as legal evidence". *Archivaria*, 69, 23-47.
- Caswell, M.(2010). Hannah Arendt's world: bureaucracy, documentation, and banal evil. *Archivaria*, 70, 1-25.
- Conway, P.,& Punzalan, R. (2011). Fields of vision: toward a new theory of visual literacy for digitized archival photographs. *Archivaria*, 71, 63-97.
- Crymble, A.(2010). An analysis of twitter and facebook use by the archival community. *Archivaria*, 70, 125-151.
- Cunningham, A.(2011). Good digital records don't just "happen": embedding digital recordkeeping as an organic component of business processes and systems. *Archivaria*, 71, 21-34.
- Dancy, R. (2012). RAD past, present, and future. *Archivaria*, 74, 7-41.
- Darms, L. (2009). The archival object: A memoir of disintegration. *Archivaria*, 67, 143-155.
- Darwall-Smith, R.,& Riordan, M. (2012). "Bad and Dangerous Work": lessons from nineteenth- and early-twentieth- century Oxford archives. *Archivaria*, 74, 93-118.
- Dever, M.(2014). Archiving feminism: papers, politics, posterity. *Archivaria*, 77, 25-42.
- Douglas, J.(2013).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original order in writers'archives. *Archivaria*, 76, 7-25.
- Dryden, J.(2014). Just let it go? controlling reuse of online holdings. *Archivaria*, 77, 43-71.
- Duff, W.M., Johnson, C.A.,& Cherry, J.M.(2013). Reaching Out, reaching i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archives' use of social media in Canada. *Archivaria*, 75, 77-96.
- Duranti, L, Rogers, C.,& Sheppard, A. (2010). Electronic records and the Law of Evidence in Canada: the Uniform Electronic Evidence Act twelve years Later. *Archivaria*, 70, 95-124.
- Duranti, L. (2009). From digital diplomatics to digital records forensics. *Archivaria*, 68, 39-66.
- Fisher, Rob.(2009). In search of a theory of private archives: the foundational writings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revisited. *Archivaria*, 67, 1-24.
- Force, D.C. (2010). From Peruvian Guano to electronic records: Canadian E-Discovery and

- records professionals. *Archivaria*, 69, 49-75.
- Galloway, P.(2011). Educating for digital archiving through studio pedagogy, sequential case studies, and reflective practice. *Archivaria*, 72, 169-196.
- German, D.,& Dozois, P. (2010). Doughty on the use and ut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archives, 1933. *Archivaria*, 70, 177-196.
- Harris, C.(2012). Paper memories, presented selves: original order and the arrangement of the Donald G. Simpson Fonds at York University. *Archivaria*, 74, 195-217.
- Hawkins, K.(2009). Reflections on InterPARES a pattern language for electronic records. *Archivaria*, 67, 157-188.
- Heil, J.M.(2013). The procrustean bed: a history of the arrangement of the Al Purdy fonds. *Archivaria*, 76, 27-54.
- Henderson, J.(2010). "I Am Pleased with the Lambton Loot": Arthur George Doughty and the making of the Durham papers. *Archivaria*, 70, 153-176.
- Jane, A. (2012). Of maps and meta-records: eighty-five years of map cataloguing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 *Archivaria*, 74, 119-165.
- Keenan, E.K.& Darms, L. (2013). Safe space: the Riot Grrrl collection. *Archivaria*, 76, 55-74.
- Lee, C.A.& Tibbo, H. (2011). Where's the archivist in digital curatio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through a matrix of knowledge and skills. *Archivaria*, 72, 123-168.
- Lemay, Y, & Klein,A.(2012). Mémoire, archives et art contemporain. *Archivaria*, 73, 105-134.
- Lemay, Y, & Klein,A.(2014). Les archives définitives : un début de parcours Revisiter le cycle de vie et le Records continuum. *Archivaria*, 77, 73-102.
- Levi, C.(2011). Five hundred 5.25-inch Discs and one (Finicky) machine: A report on a legacy e-records pilot project at the Archives of Ontario. *Archivaria*, 72, 239-246.
- Lindsay, A.(2011). Archives and justice: Willard Ireland's contribution to the changing legal framework of aboriginal rights in Canada, 1963 - 1973. *Archivaria*, 71, 35-62.
- Mak, B.(2012). On the uses of authenticity. *Archivaria*, 73, 1-17.
- Mas, S.,Maurel, D., & Alberts, I. (2011). Applying faceted classification to the personal organization of electronic records: insights into the user experience. *Archivaria*, 72, 29-59.
- Mathias, J.(2013). Improving access to the records of landed estates: balancing archival and user perspectives. *Archivaria*, 75, 145-185.
- McKemmish, S, & Piggott, M.(2013). Toward the archival multiverse: challenging the binary opposition of the personal and corporate archive in moder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 Archivaria, 76, 111-144.
- Rawson, K.J.(2009). Accessing transgender. *Archivaria*, 68, 123-140.
- Russell, B.(2013). Indian department headquarters records, 1844-1861: a case study in recordkeeping and archival custody. *Archivaria*, 75, 187-224.
- Shumilak, A.(2013). A system of their own: records creation and recordkeeping in Canada's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in the 1920s. *Archivaria*, 75, 97-113.
- Sinclair, K.(2010). Victoria: the keep-it-all state? The impact on archives of the Crimes (Document Destruction) Act 2006 and the Evidence (Document Unavailability) Act 2006. *Archivaria*, 69, 117-142.
- Timms, K.(2009). New partnerships for old sibling rival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ccess systems for the holding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Archivaria*, 68, 67-95.
- Yeo, G. (2012a). Bringing things together: aggregate records in a digital age. *Archivaria*, 74, 43-91.
- Yeo, G. (2012b). The conceptual fonds and the physical collection. *Archivaria*, 73, 43-8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ae 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7-22.
- Kang, Soon-Ae (2013).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r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41-65.
- Kim, Geou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ee-Ju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99-223.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through and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 Kim, Gyu-Hw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 Management, 43(3), 417-439.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5-25.
- Lee, Jae-Yun, Moon, Ju-Young, & Kim, Hee-Jung (2007).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345-372.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 Lee, So-Yeon (2013). Trends analysis of digital preservation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47-283.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Park, Ok Nam (2011). Knowledge structures in knowledge organization research: 2000-2011.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247-267.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 Youn, Eunha (2011). Archival studies in North America: Current development and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7-94.